

한기총 '변화발전' ... 개혁 '희망' 보인다

대표회장 '3개 군 순번제', 총회서 투표인단 선택 투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변화발전위원회 위원장 최성규 목사와 부위원장 김윤기 목사 등 위원들은 지난달 23일(금) 오전 11시 30분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관과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개정안을 기자들에게 공개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공개한 개정안들은 정관과 운영세칙, 선거관리규정 등 3개 안으로 대표회장 선출과 관련, 지나친 과열로 치닫고 있는 선거제도의 개선과 성인이 된 한기총의 변화와 발전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은 대표회장 선출방식으로 총회에서 대표회장을 선출하며, 3개 군

에서 순번제로 후보를 낸다는 것이 가장 큰 변화라 할 수 있다. 이같은 방식은 예장 통합측의 총회장 지역순환제를 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후보의 자격도 상세하게 '성직자로서의 영성과 도덕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자', '이혼한 사실이 없으며,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실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교회건축법과 도로교통법 위반은 예외)', '추천 당시 만 70세를 넘지 않은 자', '회원 교단의 총회장이나 회원 단체의 대표를 역임한 자로서 소속 총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명시했다.

3개 군은 7천 교회 이상의 교단을 '기군', 장로교 이외의 모든 교단을

'나군', 7천 교회 미만의 장로교단을 '다군'으로 구분했다. 군별 순서는 '순환 제1기'와 '순환 제2기'로 나누어지며, 순환 1기에서는 '가-나-다', 순환 2기에서는 '가-나-가-나-다'로 했다.

6년을 1순위로 볼 때 기군이 3회, 나군이 2회, 다군이 1회 대표회장을 하게 되며, 회원 교단은 해당 순서에 법 위반은 예외), '추천 당시 만 70세를 넘지 않은 자', '회원 교단의 총회장 후보를 추천하는 교단은 2명까지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게 했다.

투표의 진행 절차와 방법에도 큰 변화가 생겼다. 그동안 기표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던 것을 투표인단 선택을 통한 선거로 바꾸어 급권선거

의 폐단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투표인단 선거는 선거인 수와 동수의 삼원제 투표 방식을 준비한 후 선거인들이 투표권을 선택하게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세가지 색깔 중 하나를 선택해 이 색깔의 투표권을 가진 선거인들만이 무기명 비밀투표를 할 수 있게 했다.

입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고, 동일직에 한해 1회 연임할 수 있게 했다. 이것이 받아들여질 경우 21회기(2010년) 대표회장 선거부터 적용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대표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 및 상임위원장의 임기를 2015년(25회기)부터 2년 단임으로 하기로 해, 4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한기총 변화발전위원회 위원장 최성규 목사는 "한기총은 '사업'이 아닌 한국교회의 '연합'을 위해 만든 기관"이라며 "입원회에 제출하기에 앞서 검증 받기 위해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으며, 철저히 한국교회 전체의 연합에 초점을 맞춰 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 최성규 위원장은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선거운동 과열을 막고 돈 안 쓰는 선거 풍토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변화발전위는 투표자 수가 실행위원 2백여 명에서 총회 대의원 전체로 배 이상(현재 482명) 늘어나 '돈 쓰는' 선거풍토가 불가능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27일 입원회를 거친 후 실행위원회와 임시총회를 거쳐 확정부가 결정된다.

한장총연 정기총회, 신임회장 홍경종 장로 선출

성결성 운동과 사랑나눔운동 전개 다짐

한국장로총연합회(대표회장 박정호 장로)는 지난달 20일 한국기독교 연합회관에서 제30회기 정기총회를 열고 신임회장에 홍경종 장로를 선출하는 등 임원개선과 주요회부를 처리했다.

박정호 대표회장은 인사말에서 "성결성 회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했으나 아쉬움이 많다"고 말하며 "변천 시기 적응과 소외된 이웃 돌봄 등 사랑나눔운동은 절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신앙 신조인 기도 문 헌손에 대한 성명서 발표는 당사자와 NCCK의 유감 표명으로 우리의 신앙신조를 재확인했다"며 "이 모든 것은 회원 모두의 협력으로 이뤄낸 성과"라며 회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날 개회예배에는 박정호 대표회장

의 인도로 하례초 명예회장의 기도, 임원후 부총무의 성경봉독, 나사렛대 교수 정경숙 권사의 특송, 한기총 명예회장 이윤규 목사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라는 제목의 설교, 남기주환인장로협의회 하기연 장로와 나사렛교회 류두현 목사의 축사에 이어 나사렛 성결회 감독 이영식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회원점명예 이어 박정호 장로의 개회선언으로 시작된 정기총회는 각부 보고와 회칙개정 후 임원선거에 들어가 신임 대표회장에 홍경종 장로를 선출하는 등 임원을 개선했다.

계속해서 신규임원인사, 공로패 및 기념품 증정, 이임사와 취임사 후 홍경종 신임회장의 사회로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 기타 안건들을 처리하고 폐회했다.



남기주환인장로협의회 하기연 회장은 축사에서 "29회기를 은혜롭게 마친 임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신임회장 인 홍경종 장로와 새 임원들은 솔로몬의 지혜와 여호수아의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란다"고 축하했다.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홍경종 장로(남서울교회)는 대한기독교-나사렛교회 교단 전국장로회장을 겸임하고

고 평년형 공동회장 등 활발한 연합활동을 하고 있다.

17개 교단과 1개 해외교단으로 구성된 한국장로총연합회는 도덕성 회복과 기독교선교풍토 개선을 위한 성결성 회복운동, 노숙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나눔운동, 해외선교, 군선교 등 다양한 사역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교단 장로회 등과 교류하며 한국교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아이티 지진, 긴급구호 끝내고 '중장기 지원계획' 필요

예장통합, 아이티 재해구호 사업 보고



아이티 지진 발생 100일이 되는 시점에서 예장통합 사회봉사부는 지난 달 20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관에서 제2연수실에서 아이티지진 재해구호 사업의 내역과 중장기 지원사업 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총회 조직기 사무총장인 인사말에서 '재해구호사업이 갖는 정신과 방법, 또 앞으로의 계획과 기독교 NGO 단체들과 협력 계획 등을 알리는 것이 필

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보고가 앞으로 더욱 충실한 구호사업을 전개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기자회견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사회봉사부 총무 이승영 목사는 경과 보고에서 지진 발생 후 5차례에 걸쳐 긴급구호금과 물품 등 총 2억 3천여 만원을 지원했다고 보고했다.

사회봉사부 부총무 김동업 목사는 아이티 지진구호 중장기 지원계획 발표

에서 "현재 교단 내의 2천 8백여 교회가 참여해서 약 36억 원이 모금되었다"고 밝히고 "이제는 아이티는 긴급구호 단계를 지나 중장기 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이를 위해 입원회에서 월 드비전의 정수 위생사업에 10만불, 기아대책의 아동도서관 사업에 10만불, 학교건립에 20만불, 이동양육지원에 10만불, 농민개발사업에 20만불 등 아이티 중장기 발전을 위한 사업에 총 70만불의 지원을 결의했다"고 말했다. 이 외관련 이전에 시행한 아이티 지진재해 구호사업을 모니터링하고 앞으로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달 30일 이승영 목사가 직접 아이티를 방문하기 위해 출국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현지에서 긴급구호를 실시한 총회 파견 김중성 선교사(도미니카 공화국-아이티 담당)가 참석해 긴급구호 현황을 생생히 증언을 했다. 김 선교사는 "초기 아

특별기고

밴쿠버 피겨예술, 포항 요리예술

이원희 목사

예술은 하나님의 영역이다. 하나님이 창조한 미를 발견하여 사람에게 보임으로 감동을 안기는 것이 예술이다. 그러기에 예술은 정화역(力), 미화역(力)이었다. 그래서 예술은 값을 측정할 수 없는 고귀함이다.

2010. 2. 26 오후 1시는 밴쿠버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결승경기의 날이었다. 너무도 흔하게 있던 평범한 올림픽 토너먼트 결승 경기일이었다. 그러나 김연아의 4분 9초의 경기를 보고 세계 언론은 "여왕 폐하 만세" 국내 언론은 "행복한 대한민국 고마워요 김연아" "한국에서 온 살아 숨쉬는 예술품" "여왕의 대관식"이라며 감격의 찬사를 했던 것을 보면 이는 스포츠를 넘어 역사에 남을 한 편의 대 예술이었다. 밴쿠버 김연아 피겨 결승경기 연기만은 역사와 기억에 남을 대 예술이었다.

2010. 3. 18 포항 안디옥교회에서 우리 교단에서 있었던 다섯 번째 교역자연수의 날이었다. 관례로 평소같이 주최 장소 교회에서 성도들이 정성을 다하여 연수생 목사님들을 대접해 온 평범하다고 하면 너무도 평범한 오찬 대접 그대로였다. 그러함에도 필자의 고향 교회 성도들이 요리한 일식에 감탄을 표하며 맛있게 먹었다. 밴쿠버 피겨 예술같이 우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긴 요리 예술로 교단 역사와 기억에 남을 것이다.

1. 외지에서 찾아오는 연수생 목사 24명과 봉사자들을 포함하여 도합 어림잡아 300여 명 식사 대접에 왜 그 많은 싱싱한 포항 활어회부침을 차렸을까?

2. 삶은 연한 배추숙국에 난금년 뽕보신용이나 같이 넣을 법한 보양식 계 콩을 같이 넣은 국을 왜 만들었을까? 흔한 무시라기 된장국이면 어떻고 콩나물국이면 누가 뭐라고 하는가? 내륙 도심이나 해변 어디에도 활어회는 금값 같이 과비용이 나가는 메뉴를 왜 선택했을까?

미리 접수받은 참석연수 신청인 가운데 임원 한

사람도 없었고, 왕 원로 목사님이나 청와대 대통령이 내려가는 것이 아닌 너무도 평범한 지방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연수생 목사님들만 참석하는 오찬 준비에 왜 그 값 비싼 활어회부침과 배추 계 콩국을 대접했을까? 답은 김연아가 새벽 같이 어시장에 직접 나가 활어회감 생선을 잡았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 교단에서 배워온 목적은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 목회 목적이 능력이었고 수단방법 가리지 않고 돌격대시 이수같이 성공적인 목회를 하고 보아야 한다는 목회철학만을 가르쳤고 또 배워왔기에 인지해야 할 목회자의 눈이 팔리게 마음 편할 날이 없는데 포항에서는 너무도 평안한 정성을 갖게 하고 인약을 발라 눈동자가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강의 곧 목회학과 목회 목적이었다. 목회자는 '신뢰받는 인격'이어야 한다는 강의를 해주었다.

그렇기에 보이지 않는 목회철학이 보이는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났다. 벽에서 이름 없이 목회를 하는 무명 목회자라도 찾아오는 내방객 목사님들에게 진정으로 존경하는 인격으로 대하여 주는 목회철학을 갖다보니 상상을 초월하는 포항 요리 예술 대접을 받고 우리는 감격을 하게 된 것이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퀘바디스!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복음 아닌 것 환상에 잠겨 광란의 길 걸립니까? 아무리 찾고 외쳐도 실증되지 않고 아름답고 좋지만 한 영원한 진리 예수님이나?

제5회 포항 목회자 연수교육에 불참했으면 큰 손해를 볼 뻔하였다. 바쁘고 없애던 일 뒤로 하고 딱 한번이라도 연수 교육에 참석하게 인도하여 주신 성령님께 감사를 드렸다. 축복 받은 사람만이 연수교육에 참석을 하신다.

밴쿠버 피겨예술, 포항 요리예술

2010.4.26. 안민준총회

미션스쿨 내(內) 종교활동 자유 판결 유감

"사학진흥법 개정" 서둘러야 - 한기총



미션스쿨 내(內) 종교 활동 자유를 내세워 학교법인 대광학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강 의석씨가 승소한 데 대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유감의 뜻을 밝혔다.

한기총 김운태 총무는 "기독교 사학결성 회복운동, 노숙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사랑나눔운동, 해외선교, 군선교 등 다양한 사역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교단 장로회 등과 교류하며 한국교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심히 유감스러울 일"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기총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는 "사학들이 자유롭게 신앙교육을 하고 인재를 육성할 수 있는 사학진흥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면서 "사학은 학생선발권을 학생은 학교선택권이 교육 실정을 최대한 존중하며 최소한의 종교 활동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종교강요로 간주한 것은

헌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쥐 개인 신앙이 존중받는 교육이 실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침 경기연합회 목회비전세미나 개최

목회현장과 연합회 발전 도움 기대



기침 경기연합회(회장 이기현 목사)는 지난달 23일 태안중앙교회(담 임 김진목 목사)에서 목회비전세미나를 개최했다.

경기도지역 16개 지방 소속 407개 교회가 참여한 이번 비전 세미나 개최에는 박수진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유상채 목사(삼인교회)의 기도, 김진목 목사(삼인교회)의 10:1-18

나에 참석한 선후배 동역자의 목회현장과 연합회 발전에 도움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특강 강사로 나선 안중필 교수는 '설교의 목적과 설교자의 설교관'이란 주제로 6개의 강의로 세분화하여 1강부터 3강까지는 '설교의 선포의 원리 5대구조'를 주제로, 4강은 '설교본 작성법(서론중심)', 5강은 '설교본 작성법(본문중심)', 6강은 '설교본 작성법(결론중심)'을 주제로 저녁 6시까지 열었다.

안 교수는 설교본 서론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여러가지 서문 작성법이 있지만 가능한 성경 중심의 서론을 작성하는 것이 더욱 좋은 서론을 작성하는 방법"이라고 소개하며 "그날의 본문과 잘 연결되는 서론은 설교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기침 경기연합회는 5월 3일에 목회자 초청 문화축제, 5월 27일에 등반대회, 9월 13일에 연합회 체육대회 등 연합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